

광주 대표 자영업 ‘편의점’ 줄어든다

지난 8월 1천319곳 전년比 18곳 ↓
2023년 이후 점포 2년 연속 감소
업주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 부담”

경기 불황의 장기화 여파로 광주 대표 자영업 업종인 편의점 수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8월 기준 광주의 편의점 수는 1천31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337곳)과 비교하면 18곳이 줄어 들었다.
광주 지역의 편의점 수는 지난 2018년 8월 기준 1천21곳에서 2019년 1천33곳, 2020년 1천62곳, 2021년 1천176곳, 2022년 1천272곳, 2023년 1천341곳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1천337곳으로 처음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올해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편의점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기간 자치구별

로 살펴보면 동구만 유일하게 6곳이 늘어난 반면, 서구와 남구는 각각 3곳, 광산구는 7곳, 북구는 15곳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점포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9)씨는 “주변에 편의점이 워낙 많아 하루 매출이 예전만 못하고 월세, 전기요금, 카드 수수료 등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올해 추석에는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너무 부담돼 가족끼리 돌아가며 교대 근무를 했다”고 토로했다.
영업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편의점들도 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 동구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서모(38)씨는 “야간 근무자를 쓰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져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래

도 수익이 남지 않아 폐업을 고민 중이지만, 계약 기간이 남아 위약금을 물어야 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영업계의 어려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프랜차이즈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 과밀화와 비용 상승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점주들에게 안전한 창업, 공정한 운영, 자율적 폐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폐업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폐업 권리를 보장하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 해지권 명문화’, ‘계약 중도 해지한 가맹점의 잔여 계약기간별 평균 위약금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태호 기자



광주신세계 임직원 봉사단이 지난 21일 광천동 광주전면 일대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에코 플로깅을 진행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다채로운 친환경 활동 눈길

임직원 봉사단, 플로깅·생태 해설 등
(주)광주신세계가 다양한 친환경 활동으로 지역 사랑을 실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임직원 봉사단은 21일 광천동 광주전면 일대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에코 플로깅을 진행했다.
임직원 봉사단 20여명은 전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생태해설을 듣고, 유해 식물로 지정된 환삼덩굴 등을 제거했다. 지난 5월 세계 수달의 날을 기념해 에코 플로깅을 진행했던 광주신세계 임직원 봉사단은 이날도 광주전면에서 수달 흔적 등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 동식물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보냈다.

광주신세계는 이밖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아름다운 가게와 ‘기브 그린’(Give Green) 캠페인을 열었다. 환경의 날(6월5일)을 기념해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고자 기획된 기브 그린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의류나 소형가전 등 사용가능한 물품을 기부하면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이 기부한 가방, 옷, 도서 등 1천202점을 임직원들에게 다시 판매해 얻은 수익금(437만원)을 지역 아동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지난 4월에는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광주신세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탄소절감 캠페

인을 실시했다.
광주신세계는 임직원들이 생활 속에서 쉽고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텀블러 사용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캠페인 참여를 늘리고자 탄소절감에 동참해 인증사진을 남긴 참가자들에게는 커피 무료 음료 쿠폰 등을 제공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우리 주변 다양한 동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에코 플로깅과 생태해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광주신세계가 꾸준히 친환경 활동을 펼쳐 더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상승장 속 저렴한 종목 발굴 노력해야

주관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10월15~21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9.2%, 코스닥은 3.9%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인 코스피 1조4천억원, 코스닥 400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코스피 2조2천억원 순매수, 코스닥은 2천600억원 가량 순매도했다. 기관·외국인의 대형주 선호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무려 3천900pt를 폭전에 두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2천300포인트가 무너졌던 것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

올해 글로벌 주요국들의 증시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도 코스피는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다. 58%로 홍콩항셍 27%, 대만 21%, 일본 닛케이 22%, 나스닥 18%, 유로 STOXX50 14% 등 타 국가 대비 상승세가 무섭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고평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텐데, 코스피 지수를 밸류 측면으로 현시점에서 본다면 어떠할까.

지난 한 달간 코스피 200기업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FnGuide)는 95% 상향 조정됐고, 한국의 10월 이익 모멘텀은 글로벌 타 증시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물론 국내 증시의 극심한 저평가로 지난 5년 평균 코스피 PER인 10배보다 높은 12배 수준의 PER을 기록 중이지만, 미국의 PER은 23배 수준이고 일본 17배, 대만 18배와 비교한다면 아직 값이 멀다. 기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익의 모멘텀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연말/연초 증시의 지수 상승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주간 증시 내 특징점으로는 HBM을 중심으로 한 AI 항메모리 반도체 수급 부족 이슈에 삼성전자·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상승이 지속됐으며, 미국 내 전력 부족 소식에 ESS 관련 수혜 예상되는 2차 전

지 섹터에 강한 저가 매수세가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한 주간 20% 상승했으며, 에코프로와 엘앤에프도 각각 62%, 54% 급등해 새로운 주도업종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또한 18일 미국 베네통 재무 장관의 한미 관세협정이 마무리된다는 발언에 현대·기아차 주가도 반응했는데, 그간 오르지 못했었던 일부 코스피 상위 기업들이 저가를 탈피한 점이 코스피 상승을 높이는 데 한 몫 했다. 결국 시장은 상승장 속 상대적으로 저평가 보이는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숨은 공신이었다. 연일 하락 중인 유가이다. 미 연준과 시장이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점이 인플레이션에 유가가 WTI 기준 최근 60달러를 하회하며 기업이익에 우호적인 가격(ex. 반도체/전자기기 등) 다른 가격(ex. 생활물가/에너지)을 보다 더 크게 상승하는 주식시장에 좋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경기까지 살아난다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인플레이션은 더 세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 없는 인플레이션이 무섭지 않은 이유이며, 1980년대 후반처럼 유가가 추가 하락한다면 시장의 상승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불어 최근 정부 인사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부동산 정책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파급 효과가 큰 세제 개편 관련 발언들이 노출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와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점점 유입되고 있다.

열 나라 일본 또한 최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한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가 유신회와 손잡으며 중의원 의석 과반을 차지, 선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 닛케이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매주 갱신하고 있다. 최근 갈림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 길게는 내년 하반기까지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고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편한 투자처는 ETF라고 생각된다. 지수 ETF부터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 원전 등 각 섹터별 ETF까지 지금은 은행 예·적금보다는 일정 비중씩 나눠서라도 자산의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시기이다.

여름철 폭염 운영집합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운영집합 예방 기본수칙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엄마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 지금 이용하세요 -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 상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

대표번호: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간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idolbom.go.kr

잊지 못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지금이 캐논타이밍

2025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의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 2025년 12월 31일(수)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 2026년 1월 7일(수)

납품 전문업체

캐논스토어 062)522-2000

캐논코리아총판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CMYK